

# 그린벨트는 환경보전의 마지막 보루다

■ 편집부

● 교수님께서 얼마전까지 한국생태학회 회장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시는 환경문제와 생태학의 최근 동향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문제는 생물과 무생물과의 문제이니만큼 생태학을 주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생태계의 문제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생태학적인 측정과 해석을 환경과 관련해 하는 입장이에요. 과거엔 지리산 피아골 고지대나 설악산과 같은 문자그대로의 자연보전이 잘된 대상을 골라 조사를 했지만, 지금은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곧 사람과 관련된 장소를 채택해 연구하죠, 가령 그린벨트 지역내의 동, 식물, 토양이나 도시생태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독일의 생태학과 비슷합니다.

● 그린벨트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입니다만, 지난해엔 그린벨트완화문제로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대다수의 환경인들이 그린벨트훼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교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전 세계적으로 그린벨트가 설정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영국밖에 없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면 시의 녹지과에서 녹지소유인 개인과 연간으로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하고 있더군요, 기타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에선 20세기들어와서 인류가 자연에 기여한 가장 위대한 공적은 유일하게 한국의 그린벨트선정이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T·V 대담 시간에도 토론자도 참석

해 얘기했습니다만, 최근엔 그린벨트지역설정의 주체인 정부 스스로가 오히려 이를 잠식하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하지만 다소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린벨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린벨트의 보전이야말로 환경보전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까요?

● 좀전에 이곳에 오는 도중에 비교적 공기가 맑으리라 생각했던 신림동도 역시 예외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의 악화로 증병을 앓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오염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이 자못 우려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예, 현재처럼 오염된 상태로선 사람이 살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환경의식이 높아지면, 과거수준에까진 못미칠것지만 점차 나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이곳도 공기가 맑지 못해요. 관악산에서도 산성비로 죽어가는 수목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전국에 있는 수목들의 나이테를 조사해 보니까, 동해안을 제외한 기타 지방에선 수목의 나이테가 점점 좁아지는 양상이더군요. 시기를 추산하면 대략 30~35년전부터로 소급됩니다. 공기가 나빠진것은 50년대 중반부터가 되죠. 이젠 LNG 같은 자연가스에도 연료혁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기오염에 있어선 자동차도 큰 요인이 되고 있지요.



최근 들어서는  
생태학적인 측정과 해석을  
환경과 관련해 하는 입장이에요.  
과거엔 지리산 피아골 고지대나  
설악산과 같은 문자그대로의 자연보전이  
잘된 대상을 골라 조사를 했지만,  
지금은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곧 사람과 관련된 장소를  
채택해 연구하죠.



앞서 얘기한 산성비는 중국의 공업단지에서  
편서풍을 따라 유입되는 공기도 영향이 크기 때  
문에 국제적인 양상을 떨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하천이나 상수원 문제에 있어선 무  
엇보다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  
다.

팔당호에 있어서의 수초의 역할을 아시죠?

수초는 저질토로부터 무기영양소를 흡수, 부  
영양화를 감소시켜 수질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

습니다. 지금은 실험단계에 있지만 정화장치를  
만들때 수초를 이용해 정화하는 방법도 고려 할  
만 합니다.

● 일본에서는 중앙정부 조례보다도 지방자치  
단체의 환경조례가 더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최근 부활된 지방자치체가 자연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 생활 환경보호를 위한 주민들의 여론이 지방  
의회에 작용해 지역 정책과 재정을 쾌적한 환경  
으로 유도할 수 있겠죠.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  
에서의 영향입니다.

반면 개발을 경험하지 못한 지역주민은 개발  
에 의해 자신의 고장을 잃어버릴줄도 모르고,  
개발우선을 내세우는 후보자를 당선시켜 개발  
우선정책을 시행하게 할 확률도 높습니다. 따라  
서 저는 선거시 출마자들에게 환경보전에 대해  
어떤 정견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발표하도록 했  
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장  
들을 만나보니까 그들은 자연과 환경보호에 대  
한 뚜렷한 철학을 갖고 있더군요. 일시에 출마  
자와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  
능한 일이겠지만, 그들이 환경문제에 관한 올바  
른 자세를 지닐 수 있도록 계몽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5~6년 내지 10년간은  
환경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